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of Four Buddhist Sermons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1. 서 언	3.3 언해 이후의 판본
2. 사법어의 편찬	4. 사법어 언해본의 유통
2.1 사법어 편성의 변화 양상	4.1 언해본의 저본
2.2 나옹 문인의 사법어 편찬	4.2 언해본의 번역자 信肩
3. 한문본 사법어의 유통	4.3 언해본의 현존본
3.1 한문본의 현전본	5. 결 언
3.2 언해 이전의 판본	<참고문헌>

< 초 록 >

이 글은 고려후기에 전래된 『사법어』의 편찬과 유통 양상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사법어』는 고려 말 나옹 혜근의 문도에 의해 편찬되어 1375년 지리산 무위암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으며, 이후 1441년에 간행된 윤필암본에서 완성이 되었다. 이후 이 윤필암본을 저본으로 1467년에 간경도감에서 혜각존자 신미가 국어로 번역하여 언해본을 간행하였으며, 또한 이 언해본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한 한문본이 유통되었다. 언해본을 포함하여 현전본이 40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법어』의 성립과 편찬, 그리고 유통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몽산 덕이의 저술을 바탕으로 고려 후기 나옹의 시자 각련과 그의 법통을 계승한 조선전기 무학 자초, 함허 득통, 혜각 신미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要語: 사법어, 무위암, 윤필암, 간경도감언해본, 몽산, 나옹, 각련, 신미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5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15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ABSTRACT>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of 『Four Buddhist Sermons』 passed down at the late Goryeo Dynasty period. Compiled by a disciple of Naong Haegeun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period, 『Four Buddhist Sermons』 was first published at Muwiam Jirisan in 1375, and subsequently completed in the Yunpilam edition in 1441. Based on this Yunpilam edition as the source edition, its Korean translations were published by Hyegakjonja Shinmi at Ganggyeongdogam in 1467. In addition, its Chinese edition was distributed upon revising and partially reflecting the Korean translations. Including the Korean translations, it was found that 40 kinds of extant editions remai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of 『Four Buddhist Sermons』, based on the writings of Mongsan Deokyi passed down from China, Sija Gakryeon of Naong in the late Goryeo Dynasty period, as well as his religious tradition successors Muhak Jacho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Hamheo Deuktong and Hyegak Shinmi played the leading role.

Key words: Four Buddhist Sermons, Muwiam, Yunpilam, Ganggyeongdogam
Korean translations, Mongsan, Naong, Gakryeon, Shinmi

1. 서 언

고려 왕건은 신라하대의 지방호족과 선종 중심의 불교계의 지원으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세력에 의해 일단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이해득실로 새로운 조직체계를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고려 6대 왕인 성종 때 이르러 유교적 통치기반을 수립하고 현종과 문종시대를 거치면서 비로소 문벌귀족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고려 건국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세력인 불교계에도 교학을 중심의 법상종과 화엄종이 주류를 형성하자 상대적으로 선종은 그 세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문종의 4남으로 불문에 출가한 의천은 화엄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을 새로 개창하였다. 그는 신라하대로부터 발전되어 온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大藏經>과 <教藏> 등 방대한 불교문헌을 조성하여 교종의 확립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출판사에 있어서도 고려의 인쇄문화를 크게 발전시킨 인물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회가 지나치게 문신귀족 중심으로 경도되자 고려 명종 때 정중부 등을 중심으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한 세기 동안 무신들이 정권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인 지식층이 등장하고 사상계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불교계도 지방을 중심으로 새로운 결사형태인 수선사와 백련사 등의 신앙단체가 등장하였다. 특히 지눌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선사에서 혁신적인 결사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다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는 전기가 되어 이후 한국불교의 큰 흐름이 되었다.

한편 몽고 간섭기에 접어들어 지눌 이후 고려의 불교계는 개혁의식은 퇴색하고 수많은 종파들로 난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중국으로부터 임제종의 간화선을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 무렵 고려의 승속들이 중국 양자강 이남의 강남지역에서 활동하던 임제종의 승려 몽산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교류한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당시 몽산을 방문한 인물 중에는 내원당 混丘가 있으며, 또한 서신으로 간접 교류한 수선사 10세 국사를 지낸 慧鑑國師 萬恒(1249-1319)

과 같은 비중이 있는 불교계 인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¹⁾ 만항은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몽산으로부터 古潭이란 칭호를 받았던 흔적이 『사법어』에 남아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 중에는 몽산의 저술인 『六道普說』²⁾과 『法語略錄』 등이 자주 보이고 있어 그의 영향이 고려에 그치지 않고 조선 불교계에도 심대했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불서는 단지 한문본으로만 유통되지 않고 간경도감에서 신미(信眉)가 우리 국어로 번역한 이후로도 여러 사찰에서 중간된 사실도 보이고 있어 일찍부터 불교사뿐만 아니라 국어사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몽산의 『법어약록』에는 대부분 『사법어』가 함께 수록되어 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몽산과 이 책의 편찬자들 사이에 일련의 법계 형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더욱이 현존하는 『사법어』 판본 중에는 고려시대 간행된 판본이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어 과연 누가 혹은 어느 계파에서 편찬하여 간행한 것일까 자못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조선시대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이 간행되기 이전에도 덕기암본과 윤필암본 등이 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는데, 그렇다면 간경도감에서는 과연 어느 판본을 저본으로 언해한 것일까 이 또한 주목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종래 『사법어』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주로 언어 사실을 중심으로 연구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해본의 저본을 추적하거나 그 성립과 관련된 사실을 분석한 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몽산과 교류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법어』에 대해서 현존본을 중심으로 과연 누구에 의해서 편찬되었으며, 또한 간경도

1) 몽산의 저술과 사상에 대해서는 평생 이 분야를 천착한 허홍식 선생의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창비, 2008)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다만 연도 표기나 서명 등에 단순한 오류나 오자가 간혹 보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 필자는 수년전에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간행된 몽산의 『육도보설』 판본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그 당시 논문에 22종의 판본을 소개한 바 있었는데, 최근 경상도 남해의 甲峯菴에서 1480년에 간행된 새로운 판본이 발견되어 이 글에서 추가로 소개한다(송일기, 김은진,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六道普說 板本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207-233).

감에서 언해할 때 과연 어느 판본을 저본으로 번역하였을까, 그리고 언해본 출현 이후 조선시대 전국의 사찰에서 널리 유통된 한문본은 어떠한 간행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대부분 동반 간행되었던 『법어약록』은 아직까지 언해본 이전에 간행된 한문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다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논고로 분리하여 연구할 것이다.

2. 사법어의 편찬

2.1 사법어 편성의 변화 양상

한국선종사의 중심 인물인 나옹의 법통 형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법어』는 고려말기로부터 조선후기 사이에 한문본 30종과 언해본 10종 등 모두 40종에 이르는 다양한 판본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대는 성리학 일변도의 유교사회에서 이처럼 무려 40여종에 달하는 많은 판본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사법어』는 조선 사찰본에는 <완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³⁾ · <동산송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 ·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 등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권수제에서 採記한 공식적인 서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4편의 <법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관용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⁴⁾

그런데 『사법어』의 원형은 고려 말기 1375년에 지리산 無爲菴에서 간행된

3) 편제에 보이는 ‘皖山’은 음이 ‘환산’이나, 불가에서는 이를 ‘완산’으로 읽고 있어 이후 이를 따라서 표기한다. 굳이 전거를 살핀다면 1584년에 묘향산 義湘庵에서 간행된 『三家錄』에는 ‘完山’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다만 현존하는 언해본 중 1517년 충청도 연산의 고운사에서 간행된 판본의 卷末題에서 처음으로 ‘四法語’로 기재된 이후 후대 이를 복각한 판본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권수제에 공식적으로 표기된 판본은 없다.

판본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혜각존자 신미에 의해 구결을 달고 전체 내용을 국역하면서 상당한 개편 과정을 보였다. 언해본의 간행이후로 한문본의 내용상에도 약간의 증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 양상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四法語 篇章의 변화 양상

篇題	無爲菴本 (1375년)	德奇庵本 (1400년)	潤筆庵本 (1441년)	刊經都監 諺解本 (1467년)	大光寺本 (1525년)	普賢寺本 (1566년)
皖山正凝禪師示 蒙山法語	√ (侍者錄)	√ (侍者錄)	√ (侍者錄)	√	√	√
東山崇藏主送子 行脚法語	√	√	√	√	√	√
蒙山和尚示衆 古潭和尚法語	√	√	√	√	√	√
示覺悟禪人法語 (普濟尊者)*	-	-	-	-	√	√
晦堂禪師法語	-	-	-	-	-	√

위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존 최고본인 무위암본에는 3편의 법어만 수록되어 있으나, 보현사본(1566년간)에는 6편으로 편성되어 있어 그 사이 3편이 증가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윤필암본(1441년간)에 <고담화상법어> 1편이 더 증가되어 4편으로 편성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1467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언해본은 윤필암본과 동일하게 4편으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譯訣(구결을 달고 국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언해본 이후 가장 먼저 1525년에 순천의 대광사에서 간행된 한문본에서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普濟尊者))> 1편이 증입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법어』 언해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언해 간행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에 수록된 내용을 한문본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후 1566년에 묘향산 보현사에서 개편된 판본에는 <회당선사법어(晦堂禪師法語)> 1편이 추가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 내용

은 그 후에 간행된 은진 쌍계사본(1567년간)과 안변 석왕사본(1633년간) 등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들 판본 사이에는 편제의 증보 양상뿐만 아니라 내용상에도 일부 오탈자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무위암본 등 5종의 주요 판본 사이에 나타나는 오자의 내용을 교감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사법어의 내용교감

篇題	校勘內容	無爲菴本 (1375년)	德奇庵本 (1400)	潤筆庵本 (1441년)	刊經都監本 (1467년)	大光寺本 (1525년)
皖山正凝禪師 示蒙山法語	須是惺惺	須要惺惺	須要惺惺	須是惺惺	須是惺惺	須是惺惺
東山崇藏主 送子行脚法語	十二時中	十二時十	十二時中	十二時中	十二時中	十二時中
	莫道我與你不說	莫道我與(你不)說	莫道我與你不說	莫道我與你不說	莫道我與你不說	莫道我與你不說
	那裏是不打失處	那裏[是]不打失處	那裏是不打失處	那裏是不打失處	那裏是不打失處	那裏是不打失處
	至彌勒下生	至彌力下生	至彌勒下生	至彌勒下生	至彌勒下生	至彌勒下生
蒙山和尚示衆	不許出街	不許出街	不許出街	不許出衢	不許出街	不許出街
古潭和尚法語	驀然嗑著	驀然嗑著	驀然嗑著	驀然磕著	驀然嗑著	驀然嗑著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무위암본의 誤字가 대부분 덕기암본에서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누락된 내용은 윤필암본에서 다시 수정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후로 간행된 간경도감 언해본과 대광사 한문본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윤필암본에서 텍스트가 안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산 휴정의 문도들에 의해 『사법어』와 『법어약록』에 수록된 내용을 새로 재판한 것으로 보이는 『三家錄』이 현전하고 있다.⁵⁾ 義湘庵本 『삼가록』에

5) 이 『삼가록』은 1584년에 묘향산 의상암에서 간행되었으며, 2년 후에 1586년 충청도 계룡산 上院庵에서 이를 복각한 판본 등 2종이 현전하고 있다. 권말제 다음에 ‘唐四家錄(馬祖·百丈·黃蘗·臨濟)黃龍長老所流通’과 ‘宋三家錄(大慧·高峯·蒙山)了庵長老所流通’이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들 사이에 계승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는 대혜·고봉·몽산 등 송나라 3인의 선사들의 어록을 選編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 책에 『사법어』와 『범어약록』에 들어 있는 몽산의 범어 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변화 양상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삼가록과의 편성내용 비교

篇題	三家錄	四法語	蒙山和尚法語略錄		비고
			인해본	한문본	
示衆(蒙山和尚示衆)	√	√	-	-	四法語에 보임
示古原上人	√	-	√	√	
示覺圓上人	√	-	√	√	
示惟正上人	√	-	√	√	
示聰上人	√	-	√	√	
無字十節目	√	-	√	√	
完山(皖山正凝禪師) 附	√	√	-	-	四法語에 보임
休休庵主坐禪文	-	-	√	√	三家錄에 없음
示覺悟禪人法語(普濟尊者)	-	√	√	-	三家錄에 없음

다만 위의 기록에 보이는 황룡장로는 黃龍 慧南으로 그가 『당사가록』을 편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아래의 『송삼가록』을 유통시킨 了庵 장로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몽산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인물로는 1295년에 覺圓과 覺性 上人 등과 함께 휴휴암을 직접 방문했던 고려 승려 了庵 元明長老가 있다. 그리고 고려인 요암 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활동한 불교계 인물로 태주 임해 출신의 원나라 승려 了庵 清欲(1288-1363년)선사가 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중간한 상원암본에서는 이 ‘了庵長老’가 ‘休休庵主’로 수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의 요암 원명으로 보고 싶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삼가록』이 요암 원명에 의해 고려에서 간행 유통되었는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다음 장에는 금나라 至寧元年(1213)에 진주목사 奇若冲이 쓴 後誌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後誌에 ‘二錄’의 존재 사실을 알고서 진양목사로 부임하는 길에 중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발문을 쓴 기약층은 진주목사를 지낸 고려 사람으로 보이므로 이 책이 1213년에 고려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시기는 『삼가록』에 수록된 고봉과 몽산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들의 어록이 포함되어 있어 과연 ‘二錄’의 존재 사실과 선후관계 등이 의문이다. 그 다음 행에 “宋三家錄, 參禪衲子, 最切於日用中事, 故西山大師, 命業特此刊行爾. 門人普願書”라는 짤막한 발문이 보이고 있다. 이 글로 보아 이 책은 西山 休靜이 문인 제자들에게 시켜서 묘향산 의상암에서 간행할 때 수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간행의 일은 발문을 쓴 普願이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무렵 보원은 1579년에 지리산 신흥사에서 『범어약록』과 『禪家龜鑑』의 간행에 책자로 참여하였으며, 1583년에는 금강산에서 『선가귀감』에 발문을 써서 간행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삼가록』에는 모두 7편의 법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존본을 대상으로 보면 『사법어』에서 2편과 『법어약록』에서 5편을 모아 成篇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어』 2편은 몽산이 주거나 받은 법어이며, 『법어약록』 5편은 모두 몽산이 준 법어로 구성되었다. 다만 언해본에 수록된 <휴휴암주좌선문>과 <시각오선인법어> 2편은 『삼가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2 나옹 문인의 사법어 편찬

고려 후기 萬恒을 비롯하여 나옹과 보우 등 고려의 선사들은 중국의 선종계의 핵심 인물인 몽산과 지공선사 등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간화선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중국 강남에서 활동하였던 몽산은 고려의 승속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無字’ 화두를 추구하는 선법을 고려에 전수된 이후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⁶⁾ 『사법어』는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서적으로 成篇된 현존하는 최고의 판본은 1375년에 지리산 무위암에서 간행된 것이다.⁷⁾ 그 후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신미가 譯詁한 언해본이 나오기 이전까지 1400년과 1441년에 간행된 바 있는 덕기암본과 윤필암본이 현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3종의 『사법어』 판본에는 앞의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완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라는 篇題 아래에 ‘侍者錄’이란 저자표시가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무위암본 등이 간행될 무렵에는 아직까지 ‘(四)法語’라는 공식적인 서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편제 아래에 일종의 ‘撰者表示’를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인다.

6) 몽산의 무자화두를 중심으로 전개된 간화선 사상과 염불관에 대해서는 인경의 『몽산덕이와 고려 후기 간화선사상 연구』(서울: 명상상담연구원, 200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7) 허홍식 선생은 『사법어』가 1357년에 金字로 寫成된 사경본(호림박물관 소장 보물753호)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사경본에는 없고 1375년에 간행된 이 無爲菴本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선생 책의 <부록2 연보>에는 금자사경에 『몽산화상법어약록』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그 『법어약록』이 아니라 『육조대사법보단경』이다(허홍식,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서울: 장비, 2008), 67, 400). 이들 자료의 刊寫 시기가 1357년과 1375년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侍者錄’은 공식으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명확한 개념이 없이 단순히 시자가 기록 또는 채록해 두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시자는 고승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 책의 성립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한정해 볼 필요가 있다. 무위암본은 본래 지공이 한역한 6종의 다라니에 3편의 법어를 합철하여 1375년에 중간한 것이다. 지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려 불교계 인물로 나옹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간행 직후 1376년에 입적한 것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나옹의 시자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옹이 입적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그가 남긴 어록 및 가송 등이 제자들이 집록하여 1379년에 간행되었다. 이때 간행된 『懶翁和尚語錄』을 보면 권수제 아래로 ‘侍者 覺璉 錄’이라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간행된 『懶翁和尚歌頌』을 보면 권수제 아래에 ‘侍者 覺雷 錄’으로 찬자가 표시되어 있다. 나옹에게는 ‘覺’자 항렬의 문인과 제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이 중 그 역할이 시자로 기재된 인물은 각련 등 4인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고승의 문집을 편찬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侍者’로 표기한 사례는 『나옹어록』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로 보아 나옹의 제자 중 나옹의 문집을 집록한 경력이 있는 ‘覺璉’ 혹은 ‘覺雷’에 의해서 『사범어』가 편찬되어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한문본 사범어의 유통

3.1 한문본의 현전본

나옹의 문인이 편찬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범어』는 무위암본 등 초기 판본을 비롯하여 언해본 간행 이후로 전국의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은 현재 모두 30종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판본은 모두 독립적으로 간행된 판본은

8)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서울: 一潮閣, 1997), 370-372.

거의 없고 대부분 『초발심자경문』(계초심학인문 + 발심수행장 + 야운자경서)와 『목우자수심결』, 그리고 『몽상화상범어약록』과 합철된 형태로 전래되고 있다.

<표 4> 사범어 판본 및 수록유형

연번	간행년	간행지	수록내용	특징
01	1375	無爲菴	指空 漢譯 陀羅尼6중+(原刊記/重刊記)+三法語	幹化 賢護, 校正 克超
02	1400	德奇庵	牧牛子修心訣+(刊記)+誠初心學人文+三法語	大德9(1305)年本繅刻
03	1441	潤筆庵	牧牛子修心訣+四法語+(刊記)	化主 信隣, 刊板 宗月
04	1525	大光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05	1536	神興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尙法語略錄+(刊記)	
06	1540	釋王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刊記)	
07	[1547]	神興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刻手 信崇
08	1563	廣興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09	1563	雙峯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	
10	1565	蒼岫庵	初發心自警文+(刊記)+四法語+法語略錄+(刊記)	侍者錄, 蒙山和尙法語
11	1566	普賢寺	初發心自警文+五法語+法語略錄+(刊記)	〈晦堂禪師法語〉追錄
12	1567	雙溪寺	初發心自警文+五法語+法語略錄+(刊記)	〈晦堂禪師法語〉追錄
13	1570	無爲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	
14	1572	歸進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	
15	1572	龍泉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	法語/慧覺尊者譯訣, 訓蒙要鈔, 口訣
16	1572	表訓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	
17	1574	月精寺	初發心自警文+五法語+法語略錄+(刊記)	〈晦堂禪師法語〉追錄
18	1579	神興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19	1583	德周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20	1584	開心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21	1588	雲門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22	1603	能仁菴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23	1605	栗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24	1608	松廣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	
25	1633	釋王寺	初發心自警文+五法語+法語略錄+(刊記)	〈晦堂禪師法語〉追錄
26	1634	龍腹寺	初發心自警文+(刊記)+四法語+法語略錄	念佛因由經(金山寺板)
27	1635	龍藏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法語略錄+(刊記)	
28	1636	普賢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	
29	1640	天冠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	刻手 楚玉
30	1680	普賢寺	初發心自警文+四法語+(刊記)+法語略錄	

이상의 판본은 대체로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이 간행된 이후 수록 내용이나 유형이 크게 변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언해 이전에는 주로 『수심결』과 합철되고 있으며, 언해 이후에는 『초발심자경문』과 함께 합철하여 간행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에서는 언해본의 간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한문본 판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3.2 언해 이전의 판본

3.2.1 무위암본

이 무위암본은 1375년에 지리산의 무위암에서 重刊된 판본이다.⁹⁾ 그런데 이 책의 후미에 수록되어 있는 原刊記를 보면 본래 이 책은 1330년(天曆 3)에 達牧이 판하본을 필사하고 行眞이 판각해서 경기도 천마산 寶城寺에서 간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간본에는 지공이 한역한 5종의 다라니에 문인 達正 등이 그 내용을 도식 형식으로 협과한 비밀다라니가 수록되어 있으며, 중간본에는 완산·동산·몽산 등 세 선인의 법어 3편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간본에 수록된 3편의 법어가 바로 후대 『사범어』로 불리는 많은 자료 중 가장 초기의 원형을 보여 주는 판본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 지공과 몽산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본은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나옹의 문인들이 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옹의 문인에 의해 重刊할 때 그들의 법계를 형성하는 역대 선사의 핵심적인 3편의 법어를 추가하여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중 맨 앞에 수록되어 있는 <완산법어> 아래에 법어의 편찬과 관련된 ‘侍者錄’이란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 편찬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원간본이 간행된 천마사의 보성사는 현재 그 사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조선후기 橘山 李裕元의 별원이 있었던 가오실 마을 절터

9) 이 무위암본은 <기림사비로자나불복장전적>에 포함되어 보물959로 일괄 지정되어 있으며, 許興植의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서울: 一潮閣, 1997), 89-94에 소개된 바 있다.

부근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중간본이 간행된 지리산의 무위암 또한 현재는 폐사된 상태이나, 조선후기 19세기까지는 그 위치가 알려져 있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晉陽誌』에 수록된 <晉州牧校院寺刹 第五圖>를 보면 무위암의 존재 사실을 지도상에 밝히고 있는데, 그 위치는 남명 조식을 배양한 德川書院 좌측의 구곡산 인근으로 당시 주변에 普門庵, 佛壯庵, 靑岩寺, 大源庵 등이 소재하고 있다.

이처럼 무위암본은 지공과 몽산, 그리고 나옹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조선시대 널리 유포된 사범어의 초기 원형과 편찬자를 밝힐 수 있는 기본 근거자료이기도 하다.

3.2.2 덕기암본

이 덕기암본은 1400년에 지리산 덕기암에서 개관된 판본이다. 덕기암본에는 보조 지눌이 찬술한 『목우자수심결』과 『계초심학인문』이 함께 합철되어 있다. 앞부분에 수록된 『수심결』은 지눌의 선 수행관을 9조목으로 나누어 문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선종에 입문한 수행자들의 지침서이다. 그 다음에 수록된 『계초심학인문』은 지눌이 1205년 수선사를 중창하고 수행자들의 일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沙彌僧·衆寮僧·社堂僧에 합당한 경계를 밝힌 계율서이다.

그런데 『수심결』의 권말제 아래에는 ‘大德九年乙巳(1305)七月 日誌’라는 기록과 함께 ‘同願道人 眞罔書’라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棟梁道人 祖雲/同願道人 神鈍/社內道人 行明 雲(弘)刀’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이미 1305년에 진경이 판하본을 쓰고 행명과 운홍이 판각하여 간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을 달리하여 ‘第十代開板’이란 짤막한 기록이 보이고 있으나, 그 의미를 쉽사리 파악할 수 없다. 다만 ‘十代’는 수선사 ‘10대’ 국사인 慧鑑國師 萬恒(1249-1319)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본래 만항의 주도로 개관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이어서 ‘建文二

10) 당시 만항은 최이의 원찰이었던 강화도 선원사에 머물던 때에 몽산이 인편에 보내 온 德異本 『六祖法寶壇經』을 저본으로 1300년에 발문을 붙여서 간행한 인물로, 그의 이러한 활동은 사상적으로 지눌과 몽산과의 가교적 역할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1400)年八月 日誌/智異山德奇庵重刊'이라는 간행기록이 보이고 있으며, 그 아래로 간행에 참여한 '幹善道人 志峯/同願禪師 覺西 竺梵 信全/志信 宝莊/信智 刀'라는 명단이 기재되어 있어 그 후 1400년에 지리산 덕기암에서 1305년 판본을 信智가 복각하여 重刊한 것이다.

대구 용연사본에는 지눌의 『계초심학인문』 외에도 앞에 소개한 무위암본과 동일하게 <완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 <동산송장주송자행각법어>, <몽산화상시중> 등 3편의 법어가 후미에 부록되어 있다. 특히 <완산법어> 아래에는 무위암본과 동일하게 '侍者錄'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자료는 1400년에 중간하면서 추가한 것인가. 아니면, 1305년에 『수심결』과 함께 간행되었을 것인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1400년에 추가한 것이라면 무위암본과는 불과 15년 늦은 시기에 간행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1305년에 『수심결』과 함께 간행되었다면, 무위암본에 비해 70년이나 이른 시기에 『사법어』의 출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덕기암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板式의 형태나 字體가 『수심결』 등 3종의 자료가 모두 한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듯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시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간기가 『수심결』 끝에 수록되어 있고, 중간하면서 새로 만든 간기가 원간기와 동일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선사 10대 국사인 만항이 1305년 간행한 원간본을 저본으로 1400년에 덕기암에서 중간하면서 『계초심학인문』과 법어 3편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2.3 윤필암본

윤필암본은 1441년 영해부의 윤필암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윤필암본 또한 앞부분에 지눌의 『목우자수심결』이 수록되어 있고, 뒷부분에 『사법어』가 합철되어 있다. 형태적 특징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람에 의해 판하본이 만들어진 듯 판심이 대흑구와 흑어미로 일정하여 판식의 형태나 자체의 특징이 균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刊記는 『사법어』의 끝에 수록되어 있으나, 『수심결』의 마지막 장 반엽이 잘려나가고 다른 종이로 대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이곳에도 다른

간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간기 다음 맨 뒷장에 ‘大化主前月庵寺住持大禪師信从(隣)/寫經禪德海庇 同願禪師智如/刊板大禪師宗月’이란 간행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윤필암본은 信隣을 책임자로 海庇이 판하본을 쓰고 宗月이 판각하여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윤필암본은 앞에 소개한 무위암본과 덕기암본과는 달리 <완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 <동산승장주송자행각법어>, <몽산화상시중> 등 3편의 법어 외에 <고담화상법어>가 추가로 수록되어 있어 비로소 『사법어』의 형식을 갖춘 가장 이른 판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古潭은 고려의 수선사 출신 萬恒(慧鑑國師, 1249-1319)으로 몽산이 인가를 주고 지어 준 법호이다. 또한 그는 강화도 선원사에서 주석하던 1300년에 몽산이 『육조법보단경』에 서문을 새로 작성하여 보내 주자 이를 저본으로 자신이 쓴 발문을 부쳐 德異本을 간행하였을 정도로 친밀한 사승관계를 보였던 인물이다.

특히 윤필암본의 간기는 별도로 張을 구분하지 않고 특이하게 <고담법어> 끝부분에 바로 이어서 수록되어 있다. 간기는 ‘正統6年(1441)辛酉2月日 寧海龍頭山潤筆菴刊板’이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윤필암본이 1441년에 영해부의 윤필암에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간기에 보이는 ‘潤筆菴’은 본래는 붓을 적신다는 의미의 ‘潤筆’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잘 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필암은 현재 문경의 四佛山(일명 功德山)에 있는 대승사의 부속 암자로 소속되어 있으나, 본래 이 암자는 영해부 출신인 나옹선사가 20세 무렵에 了然선사에게 의탁하여 출가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¹¹⁾ 이곳 외에도 동일한 이름의 윤필암이 용문산, 금강산, 묘향산 등에 더 있는데, 모두 나옹과 관련이 있는 암자이다.

이처럼 윤필암본은 4편의 법어로 구성되어 있어 비로소 처음으로 ‘四法語’의 체계를 갖춘 판본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곳이 나옹의 출가처라는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윤필암본은 26년 후 1467년에 간경도감에서 혜각존자 신미가 譯訣한 언해본의 저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1) 李穡, 『潤筆菴記』, 『牧隱文藁』 卷3 所收.

3.3 언해 이후의 판본

언해본 이후에 전국의 사찰에서 간행된 한문본은 1525년에 지리산 신흥사에서 간행된 신흥사본 등 모두 26종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들 판본은 언해 이전에 간행된 판본과는 다르게 앞부분에는 『초발심자경문』, 중간에는 『사범어』, 그리고 뒤에는 『몽산화상법어약록』을 배치하여 이를 합철한 유형인 <初發心自警文+四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의 형식으로 간행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초발심자경문』은 지눌의 <誠初心學人文>, 원효의 <發心修行章>, 야운의 <野雲自警序>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범어』는 <완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 <동산송장주송자행각법어>, <몽산화상시중>, <고담화상법어> 등 4편과 언해본에 수록된 <示覺悟禪人法語(普濟尊者)> 1편이 한문본에 추가되어 있어 정확하게는 5편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문본 『몽산화상법어약록』에는 <示古原上人>, <示覺圓上人>, <示惟正上人>, <示聰上人>, <無字十節目>, <休休庵主坐禪文> 등 6편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후대 판본에서는 여기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라도 부안의 창굴암본(1465년간)에는 <蒙山和尚法語> 1편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평안도 영변의 보현사본(1566년간)에 <晦堂禪師法語>¹²⁾ 1편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12) 晦堂은 범명이 祖心(1025-1100)으로 북송 때의 臨濟宗 黃龍派 승려. 廣東 始興 출신으로 俗姓은 鄒씨이다. 19살 때 龍山寺 惠全에게 의지해 다음 해 득도하고, 후에 雲峰 文悅을 참방하여 3년 동안 시봉하고, 黃檗山 慧南을 찾아가 4년 동안 모셨다. 다시 문열에게 돌아왔으나 이미 입적한 뒤여서 石霜 楚圓에게 의족했다. 어느 날 『傳燈錄』을 읽다가 多福 선사의 말을 읽고 크게 깨우쳤다. 나중에 해남을 따라 黃龍山으로 옮겼고, 해남이 입적하자 황룡의 법석을 이어받아 12년 동안 머물렀다. 그 후에 京師로 들어가니 부마도위 王諱이 극진히 맞았지만, 國門 밖 암자에서 머물렀다. 만년에 거처를 오지로 옮겨 20여 년 동안 은거한 채 살았다. 元符 3년(1100) 11월 입적했고, 세수 76세다. 시호는 寶覺禪師고, 法嗣에 黃龍 悟新과 黃龍 惟新, 泐潭 善清 등 47명이 있다. 黃庭堅이 일찍이 스님에게 배웠다. 저서에 『寶覺祖心禪師語錄』 1권과 『冥樞會要』 3권 등이 있다(『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祖心>條 (서울: 이회문화사, 2011)). 그런데 1566년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된 판본에 하필 임제종의 황룡과 계열의 선승인 晦堂의 법어가 추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교사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금년 2015년 7월에 회당 조심의 저서 중 『명추회요』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철 선사의 문도인 원택 스님의 노력으로 한글로 번역하여 완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선가에 회당 선사가 살아 온 듯하여 남다른 느낌을 받았다.

『법어약록』의 권수제 체제도 조금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현사본에 처음으로 수록된 <회당법어>는 후대의 쌍계사본(1567년간), 월정사본(1574년간), 석왕사본(1633년간) 등에서도 보이고 있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언해본 이후에 한문본 『사법어』는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빈번하게 간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지역별 간행 현황분석

지역	종수	비율	간행지	간행처	간행년
강원도	1종	4%	강원 고성	表訓寺	1572
경기도	1종	4%	경기 삭녕	龍腹寺	1634
경상도	7종	26%	경상 안동	廣興寺	1563
			경상 청도	雲門寺	1588
			경상 청송	普賢寺	1636
			경상 하동	能仁菴	1603
			경상 하동	神興寺	1536
			경상 하동	神興寺	[1547]
			경상 하동	神興寺	1579
전라도	8종	30%	전라 강진	無爲寺	1570
			전라 담양	龍泉寺	1572
			전라 부안	蒼岫庵	1565
			전라 순천	大光寺	1525
			전라 순천	松廣寺	1608
			전라 장흥	天冠寺	1641
			전라 태인	龍藏山	1635
			전라 화순	雙峯寺	1563
충청도	4종	15%	충청 공주	栗寺	1605
			충청 서산	開心寺	1584
			충청 은진	雙溪寺	1567
			충청 충주	德周寺	1583
평안도	2종	8%	평안 영변	普賢寺	1566
			평안 영변	普賢寺	1680
황해도	2종	8%	황해 서흥	歸進寺	1572
			황해 문화	月精寺	1574
함경도	2종	8%	함경 안변	釋王寺	1540
			함경 안변	釋王寺	1633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한문본 『사범어』 27종 중 가장 많이 간행된 지역은 전라도 8종과 경상도 7종 등으로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도 간본 7종 중에는 지리산 서쪽에 위치한 하동지역에서 간행된 판본이 4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이 하동지역은 전라도 권역과 밀접한 생활권으로 간기에도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은 채 ‘智異山神興寺’ 등으로 기재하였다.¹³⁾ 다음으로 충청도 4종, 황해도, 평안도와 함경도 각각 2종의 순으로 간행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와 경기도는 각각 1종으로 조사되어 전국 8도에서 간행되었다.

이 27종의 『사범어』 중 가장 특이한 판본은 1572년 전라도 담양의 용천사에서 간행된 것인데, 여기에는 간경도감본에 보이는 ‘法語’라는 서명과 ‘慧覺尊者譯訣’이라는 역자표시가 동일하게 보이고 있고, 또한 본문에는 한자로 구결을 새겨 놓고 있다. 이로 보아 용천사본은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국역한 부분은 제외하고 구결만을 한자로 표기하여 새로 간행한 것으로 구결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찰에서 여러 차례 간행된 사례는 경상도 하동의 신흥사에서 3종을 간행하여 가장 많은 횟수를 보이고 있다. 신흥사는 임란 이전 1527년에서 1579년 사이에 22종 이상의 중요 불서를 집중적으로 간행했던 사찰인데, 그 중 『사범어』는 3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 하동 지역은 지리산의 서쪽 편에 위치하여 전라도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특히 서산 휴정이 출가한 이후 20여년 동안 활동했던 지역이다.¹⁴⁾ 그 외에도 『몽산화상법어』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판본이 보이고 있는데, 바로 1465년 전라도 부안의 창굴암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창굴암본에는 『법어약록』이 끝나고 다음 장에 큰 글씨로 ‘蒙山和尚法語’라는 제목 아래

13) 몽산과 관련된 다른 저술로 조선시대 널리 유통되었던 『육도보설』의 경우 전체 22종 가운데 8종이 전라도 사찰에서 간행된 사실이 알려져 있다(송일기, 김은진,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六道普說 板本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224-225). 이처럼 전라도 지역에서 빈번하게 간행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경상도 지역은 이 무렵 퇴계 이황(1501-1570)이나 남명 조식(1501-1572) 등 걸출한 유학자들이 배출되어 사림의 세력이 강성해졌으나, 오히려 전라도 지역에는 승려를 전문적으로 양성하였던 조계산 송광사와 지리산 서쪽 주변의 사찰에서 호남 출신의 벽송 지엄(1464-1534)으로부터 서산 휴정(1520-1604)으로 이어지는 선승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된데 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14) 宋日基, “三家龜鑑의 書誌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1991), 18-22.

비록 법어 1편이 판각 형태로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혹시 이 무렵 단행본 형태로 유통되었던 몽산화상의 ‘法語集’ 또는 ‘語錄集’ 등에서 그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한 것은 아닌가 한다.¹⁵⁾ 창굴암본 외에도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08년에 범어사와 운문사에서 간행된 『禪門撮要』에도 『몽산법어』 1편이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실은 『사법어』 중 완산이 몽산에게 보인 법어이다.

이러한 분포 현상으로 보아 지역적으로는 전국 8도의 주요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 간행횟수는 적게는 1회 이상에서 많게는 8회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간행 시기는 임란 이전 16세기에 집중적으로 개관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세기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4. 사법어 언해본의 유통

4.1 언해본의 저본

간경도감은 조선시대 세조의 명으로 1461년에 간경도감을 궐내에 설치한 이후 1471년 폐지되었을 때까지 10여년 동안 존치되어 불경의 국역과 간행을 전담했던 기관이다. 이와 유사한 도감으로 고려시대에는 방대한 대장경 조성을 위해 ‘大藏都監’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대각국가 의천의 주관으로 교장을 조성할 때 ‘敎藏都監’을 두어 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 세조가 설치한 간경도감은 비록 고려시대 설치된 두 기관과는 규모나 조직 측면에서 단순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아 건국한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

15)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자료가 현전하고 있다. 그것은 1517년 충청도 연사의 고운사에서 간행된 언해본인데, 현재 고려대 육당문고에 수장되어 있는 판본에는 권말에 이와 동일한 <몽산화상법어>와 <無字指示>라는 법어 등 2편의 필사본이 합철되어 있다. 또한 이 중 <몽산화상법어>는 『佛祖三經』에도 판각 수록되어 있으며, 종래 김민영 소장의 필사본 『염불직지초』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다. <무자지시>는 ‘示’ 아래에 법어를 준 대상이 결여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법어약록』에 수록된 <無字十節目>과 관련된 것이나 상호간에 略錄된 느낌을 준다.

고 보면 참으로 과감한 조처였다.

그러나 세조의 사망으로 불과 1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존치하였으나, 이 기관에서 국역불서 10종과 한문불서 30종 등 모두 40종 이상의 불교전적이 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사업은 널리 독경되었던 대승불경 6종과 선종 불서 4종 등 모두 10종을 대상으로 이를 국역하여 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10종의 국역본의 간략한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간경도감 언해본의 서지적 특징

書名	板刻年	譯者表示	行字數	板心	비고	조사본
大佛頂首楞嚴經諺解	1462	없음	9-17	大黑口 黑魚尾	進首楞嚴經箋	동국대 (국보212호)
妙法蓮華經諺解	1463	없음	9-17	大黑口 黑魚尾	進妙法蓮華經箋	아단문고 (1010호)
禪宗永嘉集諺解	1464	御定口訣: 慧覺尊者信眉等譯	8-19	大黑口 黑魚尾	進禪宗永嘉集箋 /學祖跋(印經字 -1495後印)	왕룡사-上 김민영-下 (1163호)
金剛般若波羅密經諺解	1464	御定口訣: 韓繼禧奉教譯	8-19	大黑口 黑魚尾	六祖口訣後序	불갑사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諺解	1464	없음	8-19	大黑口 黑魚尾	進金剛經·心經 箋/韓繼禧跋	자재암 (1211호)
佛說阿彌陀經諺解	1464	御製譯解	8-19	大黑口 黑魚尾	造成記	동국대 (쌍계사판)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 經諺解	1465	御定口訣: 慧覺尊者 信眉, 孝寧大君補, 韓 繼禧等譯	9-17	大黑口 黑魚尾	進圓覺經箋	동국대
牧牛子修心訣諺解	1467	丕顯閣 訣 慧覺尊者譯	9-17	大黑口 黑魚尾	造成記/四法語 諺解와 합철	서울대 (934호)
四法語諺解	1467	慧覺尊者譯訣	9-17	大黑口 黑魚尾	牧牛子修心訣諺 解와 합철	서울대 (934호)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1467]	慧覺尊者信眉 譯解	8-17	黑魚尾	金守溫 跋文本 * 否定論	동국대 (767호)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간경도감 국역본 중에는 『능엄경』 등 6종의 불경과 4종의 선종불서가 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불경 6종은 임제종의 간화선에서

중시한 대승경전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번역본을 선정하는 과정에 나옹 계열의 신미 등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⁶⁾ 또한 선종문헌에는 중국 당대의 永嘉 玄覺과 송원대의 몽산 덕이 선사(德異)의 저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는 고려의 지눌의 선서와 나옹 문인들이 법맥을 밝히기 위해서 편찬한 법어집이다. 현각의 『선종영가집』은 고려 말 나옹이 말년에 회암사에 주석하였을 때 문도들에게 이 책이 선 수행에 要訣書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의 문인들이 1381년 충주 청용사에서 간행한 사실이 발문에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저본으로 여기에 함허 득통의 『說誼』를 포함시켜 간경도감에서 세조가 구결을 달고 信眉가 국역한 것이다.

특히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국역본에는 임제종의 수용과 계승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인 『사법어언해』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이 책에 몽산과 사승관계인 완산과 동산으로부터 고려의 만항과 나옹으로 이어지는 법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경도감에서 1467년에 初刊되었을 때는 『목우자수심결언해』와 합철되어 있으나, 후대 중간본에서는 주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와 합철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의미가 심장하다. 또한 『사법어』의 원간본으로 보이는 무위암본이 나옹의 시자 각련 등이 편찬하여 1375년에 지리산 무위암에서 간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가 있다. 이곳 지리산은 사굴산문 출신 지눌이 수선사로 오기 전에 잠시 머물면서 새로운 결사를 구상했던 상무주암이 있었던 공간이다. 또한 몽산 화상의 『법어약록』에는 신미가 국역하면서 보제존자 나옹이 覺悟 선인에게 준 법어 1편을 추가하여 간행한 사실이 보이고 있는데, 나옹은 1350년 무렵에 몽산이 말년에 머물면서 수행과 저술에 몰두했던 휴휴암을 직접 방문하여 한 여름을 보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¹⁷⁾

이처럼 이들 4종의 선종문헌은 모두 나옹과 관련을 맺어 간행된 사실을 짐작

16) 간경도감에서 번역된 이들 6종의 불경은 몽산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필사본 『諸經撮要』의 전반부에 그 提要가 수록되어 있어 이들 간에 사상적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南權熙, “蒙山 德異와 高麗 人物들과의 交流: 筆寫本 諸經撮要의 수록내용을 중심으로,” 『圖書館學論集』 21(1994), 366-367).

17)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서울: 一潮閣, 1997), 142-147.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사범어언해』의 저본은 나옹의 출가처인 윤필암에서 1441년에 간행된 판본이 우선 지목된다. 그것은 『사범어』 언해본에도 윤필암본과 동일하게 지눌의 『수심결』이 합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2종의 불서를 번역한 해각존자 신미는 나옹의 법계와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다.

4.2 언해본의 번역자 信眉

한편 이를 국역한 신미대사는 그의 출가나 법계가 모호하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나옹의 법맥을 이은 환암 혼수와 무학 자초로부터 함허 득통과 신미로 이어지는 사승관계로 파악하고 있다.¹⁸⁾ 그는 위의 <표 6>에 보이는 역자표시에 보이는 바와 같이 1464년에 간행된 『선종영가집』의 국역 작업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이 해에는 공교롭게도 금강경, 아미타경, 반야심경 등도 연이어 국역 간행되었는데, 『반야심경』은 본래 역자표시가 없으며, 『금강경』은 근래 새로 발견된 불갑사본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韓繼禧가 번역한 역자표시가 확인되었고, 『불설아미타경』은 보물1050호로 지정된 구인사 소장의 간경도감본에는 역자가 삭제되어 있으나 후대 원간본의 복각본인 쌍계사판(1558년간) 등에는 ‘御製譯解’가 보이고 있다. 이 역자표시로 보아 본경이 분량이 많지 않아 세조가 친히 譯解했던 것으로 보이며, 신미는 이들 불경의 번역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 1465년에는 『원각경』 1종만 번역되었는데, 현재 보물970호로 지정된 판본에는 역자표시가 삭제되어 보이지 않고 있으나, 동일본인 동국대 소장본에는

18) 민덕식, “慧覺尊者 信眉의 家系와 生涯,” 『忠北史學』 제24집(2010), 58-61.

19) 세조 7년(1461)에 교서관에서 간행된 을해자본 『능엄경언해』 권10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어제발」의 내용을 보면, 당시 불경의 번역과정이 상세히 언급되어 주목된다. 이 무렵 信眉의 역할은 주로 세조가 본문에 구결을 달면 그 현토를 확인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번역한 내용 중에 잘못된 곳을 수정하는 일을 제자 학열과 학조 등과 함께 교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실제적인 불경의 번역은 한계희와 김수운이 수행하였다.

‘御定口訣/慧覺尊者信眉 孝寧大君補 韓繼禧等譯’ 2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미가 효령대군보다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번역의 책임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67년에 국역 간행된 『수심결』과 『사법어』, 『법어약록』에는 ‘慧覺尊者’²⁰⁾ 信眉가 역자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 그가 번역자임이 분명하다.²¹⁾ 다만 『수심결』은 권수제 다음 행에 ‘丕顯閣 訣’이란 표시가 있는데,²²⁾ 앞서 간행된 판본에는 ‘御定’ 또는 ‘御製’로 기재된 것과는 다르나 모두 세조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어』는 해각존자 신미가 1467년에 간경도감에서 1441년에 간행된 윤필암본을 저본으로 『수심결』과 함께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하여 간행되었다.

- 20) 문종이 즉위하자 신미에게 내려 준 ‘慧覺尊者’라는 칭호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칭호는 본래 부왕 세종이 하사하고자 하였으나 유명으로 문종이 즉위하자 이내 시행하자 전례가 없다하여 이를 반대하는 상소가 비등하였다. 특히 칭호 중에 ‘尊者’는 아난존자와 같이 부처의 제자에게 부여하는 존호이므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면서 범호인 ‘慧覺’만 쓸 것을 주장하여 ‘宗師’로 존호하였다. 그 후 이 칭호는 세조 10년(1464)에 와서 본격 사용되었으며, 이때 이후로 간행된 간경도감 언해본에도 역자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 21) 그런데 『법어약록』의 간행시기에 대해서는 판식의 특징과 언어사실 등을 근거로 1461년이전설, 1463년설, 1467년설, 1472년설 등 異論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사실이 없다는 부정론도 보이고 있다. 위에 제시한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판식 상의 특징을 보면 판심부분이 간경도감본은 모두 ‘大黑口/黑魚尾’ 형식으로 되어 있고, 行字數 또한 ‘9행17자’ 또는 ‘8행19자’로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법어약록』은 ‘黑魚尾’에 ‘8행17자’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정론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의 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慧覺尊者’라는 칭호는 1464년부터 역자표시에 본격 사용되었고, 특히 몽산과 관련된 『사법어』가 1467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 필자는 原刊記가 있는 다른 판본이 발견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1467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 22) 비현합은 세조실록 9년(1463) 11월 8일조에 思政殿 동쪽 모퉁이의 內廂庫 2칸에 창문을 그대로 두고 임금이 거처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이름을 『書經』(太甲 上)에 있는 “先王, 昧爽丕顯, 坐以待旦”(湯王은 날이 아직 밝지도 않은 새벽녘에 크게 덕을 밝히며 앉아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에서 그 뜻을 취하여 ‘丕顯閣’이라 하였다. 이 전각은 세조가 정무 외에 주로 이곳에 머물면서 종친이나 신료를 만나 가벼운 사안을 처리하거나 여흥을 즐겼던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실록의 기사를 보면 그의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다. 이 책의 역자표시에 굳이 ‘丕顯閣’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그가 즐겨 이곳에 머물러 그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가 작업한 불경의 구결 작업도 대부분 이곳에서 완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4.3 언해본의 현존본

고려 말 나옹의 문인들에 의해 편찬된 『사범어』는 1441년에 새로 「고담화상법어」 1편을 추가하여 『수심결』과 합철한 윤필암본을 저본으로 1467년 이를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이 간행된 바 있었다. 이후 이 간경도감 언해본을 저본으로 전국의 사찰에서 9종 이상이 중간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현전본과 간략한 서지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사범어언해』의 현존본 현황

연번	板刻年	刊行處	譯者表示	行字數	板心	刊行者	비고	조사본
01	1467	刊經都監	慧覺尊者譯訣	9-17	大黑口 黑魚尾	安惠 等書	牧牛子修心訣과 합철, 卷首題-法語	김민영
02	1500	鳳栖寺	慧覺尊者譯訣	9-17	大黑口 黑魚尾	幹化 岡敏	牧牛子修心訣과 합철 / 宣德 燈谷	한글박물관
03	1517	孤雲寺	慧覺尊者譯訣	7-18	大黑口 黑魚尾	幹化 三應 · 覺峻/書 刊 希世	法語略錄·蒙山和尚 法語(필사본)와 합철, 卷末題-四法語	고대-육당
**	1521	楡帖寺					法語略錄만 있음	동국대
**	1523	石輪庵					法語略錄만 있음	국립도서관
04	1525	深源寺	慧覺尊者譯訣	7-18	大黑口 黑魚尾	刊字 慧圓 書 希世	法語略錄과 합철 化主 性旭·處安	고대-만송
05	1535	水鉢庵	慧覺尊者譯訣	7-18	大黑口 黑魚尾	刻手 印岑	法語略錄과 합철 化主 學玄·信戒	고대-만송
06	1543	中臺寺	慧覺尊者譯訣	8-18	黑魚尾	刀 儀岡· 天印·仁惠	法語略錄과 합철 引化 雪峯	계명대
07	1566	鶯菴寺	慧覺尊者譯訣	7-18	大黑口 黑魚尾	刻手 正云	法語略錄과 합철 化主 先楫	불갑사
08	1573	龍泉寺	慧覺尊者譯訣	8-18	黑魚尾		法語略錄과 합철 勸善 慧澄	개인
09	1577	松廣寺	慧覺尊者譯訣	7-16	3葉花 紋魚尾	幹化戒熙, 刻秩 大俊· 崇印, 書正修	法語略錄과 합철 普濟尊者法語	보림사
10	1605	圓寂寺	慧覺尊者譯訣	7-18	3葉花 紋魚尾		法語略錄·十牛頌과 합철	고대-만송

간경도감에서 1467년에 간행된 『사범어언해』는 『수심결언해』와 합철되어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것은 봉서사본(1500년간)을 제외하고 후대에 중간된 판본은 대부분 몽산의 『법어약록언해』와 합철되어 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후대 중간본 중에 봉서사본만 행자수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완전한 복각본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행자수가 7행18자 혹은 16자로 되어 있고 간혹 8행18자본도 보이고 있어 부분적으로 개편하여 간행하였다. 그러나 권수제와 함께 기재된 역자표시 ‘慧覺尊者譯訣’은 모든 판본에 판각 위치만 다를 뿐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

그 중 1517년 충청도 연산의 고운사에 간행된 판본은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변화는 『법어약록언해』와 합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간경도감 원간본이 본래 『수심결언해』와 합철되었던 사실과는 크게 다른 점이며, 또한 권말제가 ‘法語’에서 구체적으로 편수를 기입한 ‘四法語’로 바뀌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밖에 판식상에도 9행17자에서 7행18자로 개편되었고, 판심부분도 ‘大黑口/黑魚尾’ 형식에서 후대로 가면서 흑어미 또는 화문어미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식상의 특징으로 보아 후대 이를 저본으로 심원사, 빙발암, 취암사, 원적사본 등이 복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권말에는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蒙山和尚法語’라는 제목 아래 법어 1편과 <무자지시(無字指示)>라는 법어 1편이 필사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중대사본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며, 이를 같은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용천사본에서 반영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1577년 송광사에서 간행된 판본에서는 보제존자 나옹이 제자 覺悟에게 준 법어 1편이 『법어약록』에서 『사범어』로 옮겨져서 간행됨으로써 다른 언해본에 비해서 편성체제 상에 크게 변화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초발심자경문』도 송광사에서 처음으로 언해되어 간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시에 송광사본은 아마 한문본의 체제로 재편하여 언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언해본 중에는 전라도 진안, 순창, 담양, 순천 등지에서 다수 간행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이 한글문헌 간행에 일정한 벨트를 형성하였던 점에서 주목된다.²³⁾ 그 외에 『법어약록언해』의 판본 중에 유점사

본과 석륵암본이 현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법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 존재 여부가 의문이다.

5. 결 언

이상에서 고려 말로부터 조선시대에 널리 유포되었던 『사법어』의 편찬과 언해, 그리고 간행과 유통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사법어』의 불교사 및 국어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의 연구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서지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사법어』의 판본은 한문본 30종과 언해본 10종 등 모두 40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단일 불서로는 조선시대 강원 교재로 전국의 사찰에서 간행되어 널리 보급된 바 있는 서장·도서·선요·사기 등의 사집과 불서를 훨씬 능가하는 수량으로 그 유통 배경에 의미가 있다.

둘째, 이처럼 4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판본 중에 가장 먼저 간행된 판본은 1375년에 지리산 무위암에서 간행되었다. 무위암본에는 3편의 법어가 수록되어 있으나, 그 후 1441년에 간행된 윤필암본에는 1편이 증입되어 비로소 『사법어』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1525년에 지리산 신흥사에서 간행된 한문본에는 언해본에 수록된 보제존자가 각오선인에게 준 법어 1편이 추가되었으며, 1566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된 판본에 『회당선사법어』 1편이 추가된 사실이 조사되었다.

셋째, 가장 초기에 간행된 무위암본을 비롯하여 덕기암본(1400년)과 윤필암본(1441년)의 제1편의 완산법어 제목 아래에 ‘侍者錄’이란 일종의 찬자표시를 근거로 이 책의 편찬에는 나옹 혜근의 문인과 제자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문인 중 시자의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스승인 나옹의 어록을 집록한 경험이

23) 순창의 취암사에서 몽산화상의 육도보살언해본도 사법어언해가 간행된 다음해인 1567년에 개관된 사실이 알려져 있고(南權熙, “蒙山和尚六道普說 諺解本の 書誌的 考察,” 『어문논총』 제25호, 63-74), 또한 그 보다 앞서 순창 취암사 인근의 無量堀에서 1559년에 『월인석보』 권23이 개관된 사실도 보이고 있다.

있는 覺璉과 覺雷를 우선 편찬과 관련된 중요 인물로 지목하였다.

넷째, 조선 세조 재위연간인 1467년에 간경도감에서 국역본이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고려 보조국사 지눌의 『수심결』도 동시에 번역되어 한 책으로 裝潢되어 있다. 이때 『수심결』은 세조가 그의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丕顯閣이란 전각에서 구결을 달고 해각존자 신미가 우리 국어로 번역하였다.

다섯째, 국역자 신미는 간경도감 설치 초기에는 주로 세조가 단 구결을 확인하고 한계희와 김수온 등이 번역한 내용을 제자 학열과 학조 등과 함께 교열 작업에 참여 하였다. 해각존자 신미가 역자표시에 공식적으로 국역자로 등장한 언해본은 1464년 『선종영가집』의 간행부터이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번역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현재 간행시기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어약록언해』의 간행시기도 이 이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사법어』는 다른 불서들과 합철되어 간행되었다. 대체로 언해본의 간행 이전에는 지눌의 『수심결』과 합철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언해본은 『법어약록언해』와 합철되었으며 한문본의 경우는 『초발심사경문』과 합철되어 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의 지눌과 만항, 그리고 임제종 양기파로 간화선을 보급한 몽산과 이를 고려에 확산한 나옹 사이의 일정한 법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일곱째, 『사법어』의 현존본 39종 가운데 지역별 간행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라도이다. 이 지역에서는 한문본 8종과 언해본 4종 등 모두 12종이 간행되어 전체의 31% 정도를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언해본의 경우 전라도의 동부지역으로 지리산과 근접한 진안의 중대사, 순창의 취암사, 담양의 용천사, 순천의 송광사 등에서 16세기에 후대 중간본의 절반을 차지하는 종수가 계속해서 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이 지역이 한글문헌을 생산하는 일정한 공간적 벨트가 형성되었던 지역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사법어』는 조선시대 40여종 이상이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무렵 벽송 지엄이 사미

들의 강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교과 불서 또한 다수 간행했던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과의 상관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부분 『사법어』와 함께 합철된 몽산 화상의 『법어약록』의 간행과 유통 양상을 살피는데도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무봉.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국어사적 고찰.” 『동악어문론집』 28집(1993). 105-138.

민덕식. “慧覺尊者 信眉의 家系와 生涯.” 『忠北史學』 제24집(2010). 43-97.

宋日基. “三家龜鑑의 書誌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1991.

송일기, 김은진.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六道普說 板本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224-225.

인 경.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간화선사상 연구』.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2009.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서울: 一潮閣, 1997.

許興植.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서울: 창비, 2008.